

2017. 12.19[화]



충남 서비스산업 종합발전계획[案]



순 서

I. 배경 및 목적	1
II. 정부 서비스산업 동향	2
III. 충남 서비스산업 현황	2
IV. 향후전망 및 집중 육성산업 선정	4

충남 서비스산업 종합발전계획(案)

I 배경 및 목적

-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 확대(서비스경제화)
- 서비스산업의 고도화, 융합화로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제조업 등 타 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도 함께 상승
- 비교역재였던 서비스가 교역재化 됨에 따라 국제경쟁 가속화
 - 인터넷 쇼핑, 여행, 한류콘텐츠, 소프트웨어, 교육(유학, 온라인 교육 등)
-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
-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로봇이용 확대, 무인 자동화
 - 무한경쟁의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로봇사용 증가
- 지능 정보기술이 확산하여 ‘생산과 소비의 혁명’ 시대 도래 전망

◆ 생산과 소비의 혁명 : 독일의 ‘인더스트리 4.0’

- 제조업에 ICT를 접목, 생산성 극대화, 방대한 정보를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하고 인공지능(AI)으로 가장 효율적인 생산방법을 찾아내 소량 다품종 생산에도 대량생산과 동일한 효율향상 추진.

- 충남 주력 제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의 불확실성 증가
 - 공장 자동화와 해외이전, 주력 산업의 중국, 일본과의 경쟁 격화
- ※ 포브스(Forbes)지(誌) “제조업관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농업인들이 거의 사라진 것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. 어느 나라 정부나 경제정책이 이를 막을 수 없었던 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”

II

정부 서비스산업 동향

○ 서비스경제 발전전략('16. 3월)

- OECD 수준으로 서비스산업의 고용·부가가치 비중 확대
 - 고용 : ('15년) 70% → ('20년) 73%/ 부가가치 : ('15년) 60% → ('20년) 65%
- 서비스 산업 일자리 25만개 창출/ 제조업·서비스산업의 융합발전
- 7대 유망 서비스산업* 육성

* 7대 유망 서비스산업 : 의료, 관광, 콘텐츠, 교육, 금융, SW, 물류

○ 국정운영 5개년 계획('17. 7월)

-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창출
-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
- 소프트웨어 강국, 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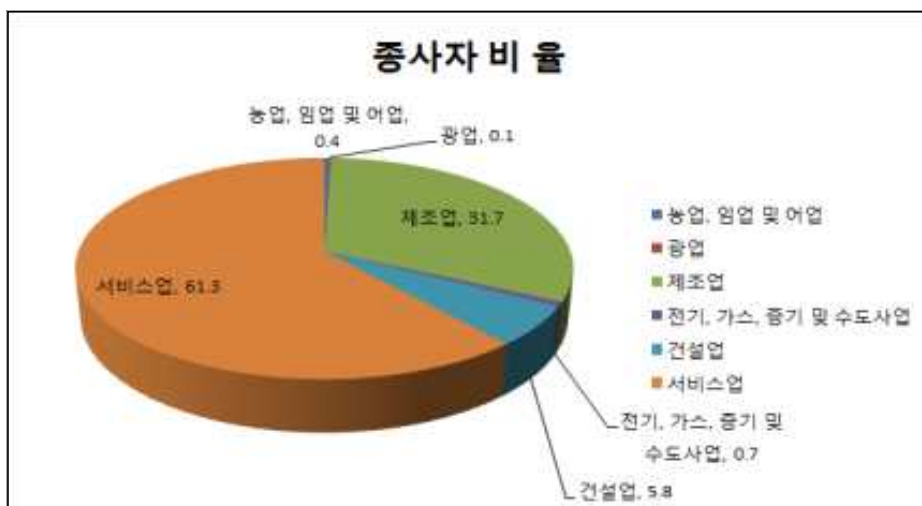
○ 서비스산업발전법(안) 국회 계류 중('17. 12월 현재)

II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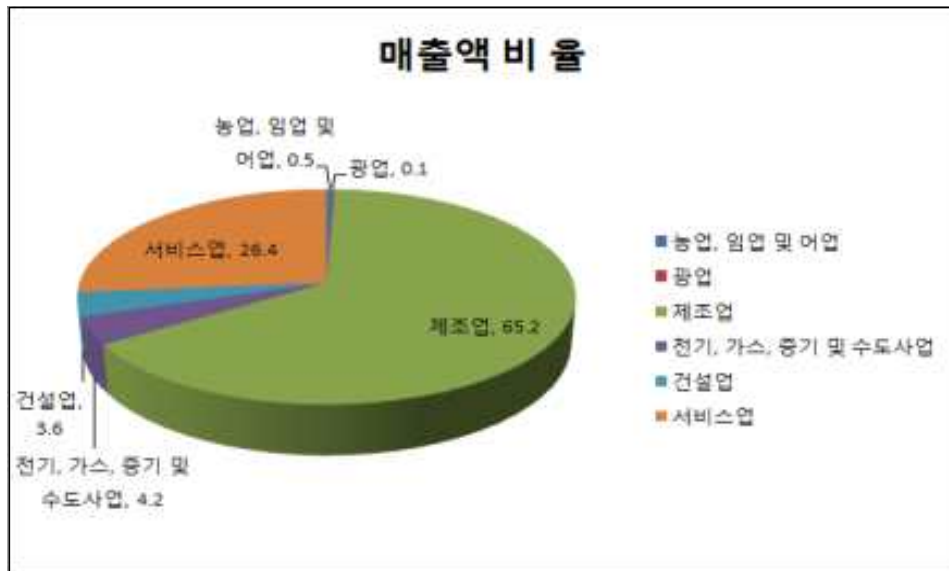
충남 서비스산업 현황 (통계청 경제총조사 2015)

□ 전체산업에서 서비스산업 비율

- 종사자수) 서비스업 61.3% 526,409명, 제조업 31.7% 272,244명으로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1.9배



- 매출액) 제조업 65.2% 178조 9,102억원, 서비스업 26.4% 72조 2,161억원으로 제조업이 서비스업의 2.5배



□ 서비스산업 일반현황

- 사업체 135,795社, 종사자 526,409명, 매출액 72조원 규모
- 매출액은 도소매업 35.0% 25조 2,672억원 금융보험업 15.3% 11조 595억원 교육서비스업 7.6% 5조 4,671억원 규모 순
- 종사자수 도소매업 19.8% 104,424명, 숙박, 음식점업 16.7% 87,783명 교육서비스업 12.1% 63,815명 규모 순
- 충남 서비스업 매출액 증가율(2010 ~ 2015) : 30.0%
 -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(105.4%)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74.4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66.4%)에서 높은 증가
 - 반면, 금융 및 보험업(△13.2%)에서 감소
- 충남 서비스업 종사자수 증가율(2006 ~ 2015) : 39.6%
 -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194.5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117.4%)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79.4%)에서 높은 증가
 - 반면,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△2.1%)에서 감소

□ 도매 및 소매업(증가율* : 사업체20.2%, 종사자32.1%, 매출액35.3%)

* 증가율 : 통계청 경제총조사 기준, 사업체, 종사자수('06~'15), 매출액('10~'15)

- 충남 도소매업 매출액은 25조 2,672억원으로 서비스업 내 비중이 35%로 가장 크며 전국 도소매업에서 충남 비중은 2.3%
- 유통업의 구조변화는 1996년 UR협상의 결과로 유통시장 완전 개방에 의한 외국대형업체의 진출과 대형마트가 타 소매업태에 비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유통시장에서 대형화 및 과점화
- 대형마트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편의점의 급속한 성장으로 소매유통 업태는 기업형 유통구조로 전환 가속화
-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무인점포 기술개발 및 시험 운영중(세븐일레븐, 이마트 등)
- 재래시장은 젊은 층 선호도가 낮아 향후 대기업 및 온라인 유통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 증가 전망

향 후 전 망

-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온라인 직접 연결과 무인점포의 등장으로 인해 향후 유통부분의 일자리 창출 불확실성 증가

□ 운수업(증가율 : 사업체30.1%, 종사자39.0%, 매출액40.8%)

- 충남의 운수업은 매출액 4조 9,245억원으로 충남 서비스업 내 비중이 6.8%이며 전국 운수업 매출액에서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2.7%
-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비 절감을 위한 항만, 공항, 도로 등 교통망 확충 필요
 - 충남에는 공항이 없고 수출입에 중요한 컨테이너 선적 항만 시설 부족
 - ※ 좁은 국토, 항만 확장성 등 고려 시 신규건설에는 한계가 있음

향 후
전 망

- ICT산업 발달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물류산업의 발달은 지속되나 자율주행차 및 물류센터 자동화로 일자리 창출 불확실
※ 아마존 물류센터 자동화, 영국 2021년까지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허용, 등

□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

정보서비스업(증감율 : 사업체38.2%, 종사자△2.1%, 매출액36.8%)

- 충남의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매출액 1조 8,153억원으로 충남 서비스업 내 차지하는 비율은 2.5%이며 전국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충남 비중은 1.2%
-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인력의 수도권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
 - 수도권과의 사업여건, 교육, 문화 등 생활환경, 임금격차 등 원인
- 관광과 연계 플랫폼(예:제주PASS) 등 지역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한 지식서비스센터 구축 추진 필요
-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경쟁력 있고 우수한 소프트웨어 업체와 제조업의 융합 필요
-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조합 형태의 지원·육성이 필요하나, 대부분 수도권에서 창업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
※ 넥시드 펀드 :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의 문화콘텐츠 및 창업초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벤처투자조합

향 후
전 망

- 컴퓨터나,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, 캐릭터 산업 육성 필요(선정)

□ 금융 및 보험업(증감율 : 사업체12.3%, 종사자11.6%, 매출액△13.2%)

- 충남의 금융·보험은 매출액 11조 595억원으로 충남 서비스업 내 차지하는

- 비율은 15.3%에 이르나 전국 금융·보험업에서 충남 비중은 1.4%
- 2017년 모든 업무를 365일, 24시간 내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은행(K뱅크, 카카오뱅크) 등장
- 수도권 위주의 기업금융과 농어촌 지역의 소득 정체와 고령화로 매출액 감소 등 성장 제약

향 후 전 망

- 금융산업은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전자화폐 등 온라인 금융이 증가하면서 향후 일자리가 줄어들 전망
- ※ 한국씨티은행은 국내 영업점의 80%를 축소, 133개 영업점을 대형 거점점포 30여 개로 통합 추진 중

□ 부동산업 및 임대업(증감율: 사업체29.5%, 종사자37.5%, 매출액△1.5%)

- 충남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매출액이 2조 902억원으로 충남 서비스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.9%이고 전국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충남 비중은 1.9%
- 종사자는 증가하나 매출액이 줄어들어 생산성 악화
-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상승은 근로의욕을 저해하여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규제 시행

향 후 전 망

- ICT기술 발달로 부동산 중개형태가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부동산업 매출 감소로 일자리 창출에 한계

□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(증가율: 사업체 62.6%, 종사자 79.4%, 매출액 55.6%)

- 충남의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매출액 1조 8,009억원으로 충남 서비스산업 내 차지하는 비중은 2.5%이며, 전국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충남 비중은 1.0%
- 연구개발, 법률, 세무, 광고, 경영컨설팅,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등과 전문디자인 등 분야로 주로 도시에서 발달
- 식품 등 지속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관련

서비스산업 육성 필요

향후 전망

- 선진국 진입과 중국 등 국제경쟁에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디자인 등 중요성 증가
- 우리도가 강한 제조업분야 관련 연구개발업 육성 추진 필요(선정)

□ 사업시설관리 및

사업지원 서비스업(증가율: 사업체106.3%, 종사자194.5%, 매출액74.4%)

- 충남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매출액 1조 7,762억원으로 충남 서비스업 내 차지하는 비중은 2.5%이며, 전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충남 비중은 2.9%
- 청소, 소독 및 방제, 경비·보안 등으로 제조업 발달, 도시화와 함께 아파트 증가 등으로 높은 성장

향후 전망

- 정보통신 로봇기술 등 발달에 따라 무인화 가능성이 큰 분야로 육성에는 한계(※ 최근 CCTV설치 및 아파트 경비원 감축 논란 등)

□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

환경복원업(증가율: 사업체80.6%, 종사자59.9%, 매출액2.7%)

- 충남의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매출액은 8,970억원으로 충남 서비스산업 내 차지하는 비중은 1.2%이고 전국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충남 비중은 5.4%
- 폐기물 수집운반 및 원료재생업이 매출의 85%이상을 차지하며 충남의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침

※ '15년 전국 폐기물 일일발생량 기준 사업장 폐기물 87.7% 생활폐기물

12.3%로 폐기물의 대부분을 사업장 폐기물이 차지

향 후
전 망

- 사업장 폐기물은 지역 제조업, 건설업 등 산업과 연관하여 주로 발생하므로 경기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운송비로 인해 사업량 확대에 한계

□ 공공행정 국방 및

사회보장 행정(증감율 : 사업체△14.6%, 종사자24.4%, 매출액105.4%)

- 충남의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매출액 5조 2,372 억원으로 충남 서비스업 내 차지하는 비중이 7.3%이며 전국 공공 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충남 비중은 4.9%

- 2012. 7월 세종시 출범으로 사업체수 감소

향 후
전 망

- 관공서, 육군·해군·공군 3군 통합기지 등 공공행정, 국방의 성격상 매출액 증가에는 한계

□ 교육서비스업(증감율 : 사업체14.8%, 종사자17.4%, 매출액32.0%)

- 교육 서비스업은 매출액 5조 4,671억원으로 충남 서비스업 내 차지하는 비중이 7.6%이며 전국 교육서비스업에서 충남 비중은 4.7%
-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평생교육 증가
- 온라인 공개수업(MOOC : Massive Open Online Course) 플랫폼이 서비스되고 있으나 충남지역의 대학은 참여대학이 없는 실정
- 해외) 하버드, MIT, 스탠포드대학 등 유명 대학 강의 온라인 제공
- 국내) '15.10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K-MOOC를 시범 운영하여 10개 대학* 참여

* 10개 대학 : 서울대 연세대, 고려대, 경희대, 부산대, 성균관대, 이화여대

향 후
전 망

- 주요 교육시설(유명 대학 등)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지역의 특성상 저 출산에 따른 폐교와 학생 수 감소 전망

□ 보건업 및

사회복지서비스업(증감율:사업체 72.1%, 종사자 117.4%, 매출액 66.4%)

- 충남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매출액 3조 9,031억원으로 충남 서비스산업내 차지하는 비중이 5.4%이며, 전국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충남 비중은 3.6%
-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매출액이 2010년 2조 3,460억원에서 2015년 3조 9,031억원으로 66.4% 증가
- 온천 등 지역 병원, 관광과 연계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협의체 구성하여 사업화 모색

향 후
전 망

-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수 및 매출액 규모 확대 전망

□ 숙박 및 음식점업(증감율 : 사업체17.2%, 종사자27.3%, 매출액61.9%)

- 충남의 숙박 및 음식점업은 매출액 4조 6,087억원으로 충남 서비스산업 내 6.4%를 차지하며, 전국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충남 비중은 3.8%
- 숙박, 음식점업은 IMF이후 실업에 따른 한정된 시장에서의 급격한 창업의 증가로 생산성 악화
- ⇒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으로 소득증가와 외부 관광객의 유입을 통한 지역 숙박, 음식점업의 매출증대 필요

향후
전망

- AI인공지능 등 발달로 직업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음식점업은 소액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지속가능성, 체인사업화 가능성 등의 매력으로 직장 퇴직자들의 창업이 지속될 전망(선정)

□ 예술, 스포츠 및

여가관련 서비스업(증감율: 사업체7.6%, 종사자24.5%, 매출액18.0%)

- 충남의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매출액 1조 718억원으로 충남서비스산업 내 차지하는 비중은 1.5%이며 전국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충남 비중은 2.4%
- 연극, 무용, 음악 등 공연 기획, 도서관, 박물관 식물원, 골프장 스키장 등 유원지, 테마파크 등 사업으로 관광과 연계 육성하여 숙박, 음식점업의 생산성 향상 필요
- 충남 서북부 공업지역과 그 외 제조업 기반이 약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환경에 맞는 관광, 여가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육성 필요

※ 백제문화관광, 해양레저(요트, 낚시 대회 등), 온천 등

향후
전망

- 향후 무인화, 자동화, 일자리 나눔 등을 통하여 근무시간이 줄어들 전망으로 예술, 스포츠, 여가 등 수요증가 전망

□ 협회 및 단체 수리 및

기타 개인서비스업(증감율: 사업체13.5%, 종사자31.6%, 매출액70.9%)

- 충남의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2015년 매출액 규모는 2조 2,969억원으로 충남 서비스업 내 차지하는 비중은 3.2%이며 전국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충남 비중은 3.9%

- 노동조합, 종교, 정치단체, 시민운동, 자동차 가정용품 등 수리
미용업 세탁업, 음식점업 등 사업

향 후 전 망

- 지역 내수 위주의 사업으로 저 출산 고령화인 현재 상황에서성장 및
생산성 향상에 한계

V 문제점 및 대응방안

- 서비스산업은 도시에서 발달하는 3차 산업으로 천안 등 일부
도시 지역을 제외한 충남 대부분의 지역이 1차 산업을 중심으로
하는 농어촌지역과 서북부의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
지역으로 서비스산업 발달 미흡

※ 도시지역과 충남의 비교(통계청 경제총조사 2015매출액 기준)

◆ 서울 : 서비스산업 89.6%, 제조업7.6%, 건설업2.8%

◆ 충남 : 서비스산업 26.4%, 제조업65.2%, 전기가스증기 상하수도4.2%

- 서비스산업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전 분야를 육성하기에는
인력이나 예산상 한계

⇒ 도시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우리도의 환경 상 유망한
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

- 지역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나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미흡한
상황에서 지역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에 한계

⇒ 조례제정 및 연구 지원센터 등 지원체계확립 체계적 지원

- 서비스산업 추진 조직, 예산 및 인력의 분산

⇒ SW, 콘텐츠 산업은 유망하지만 우리도는 인력 및 관련 산업의
발달이 미흡한 상황에서 충남TP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
업무가 나뉘져 있어 장비 및 인력 통합 필요

○ 서비스산업 유망분야 선정, 집중 육성과제 발굴(계속)

⇒ SW, 애니메이션, 관광, 의료 등